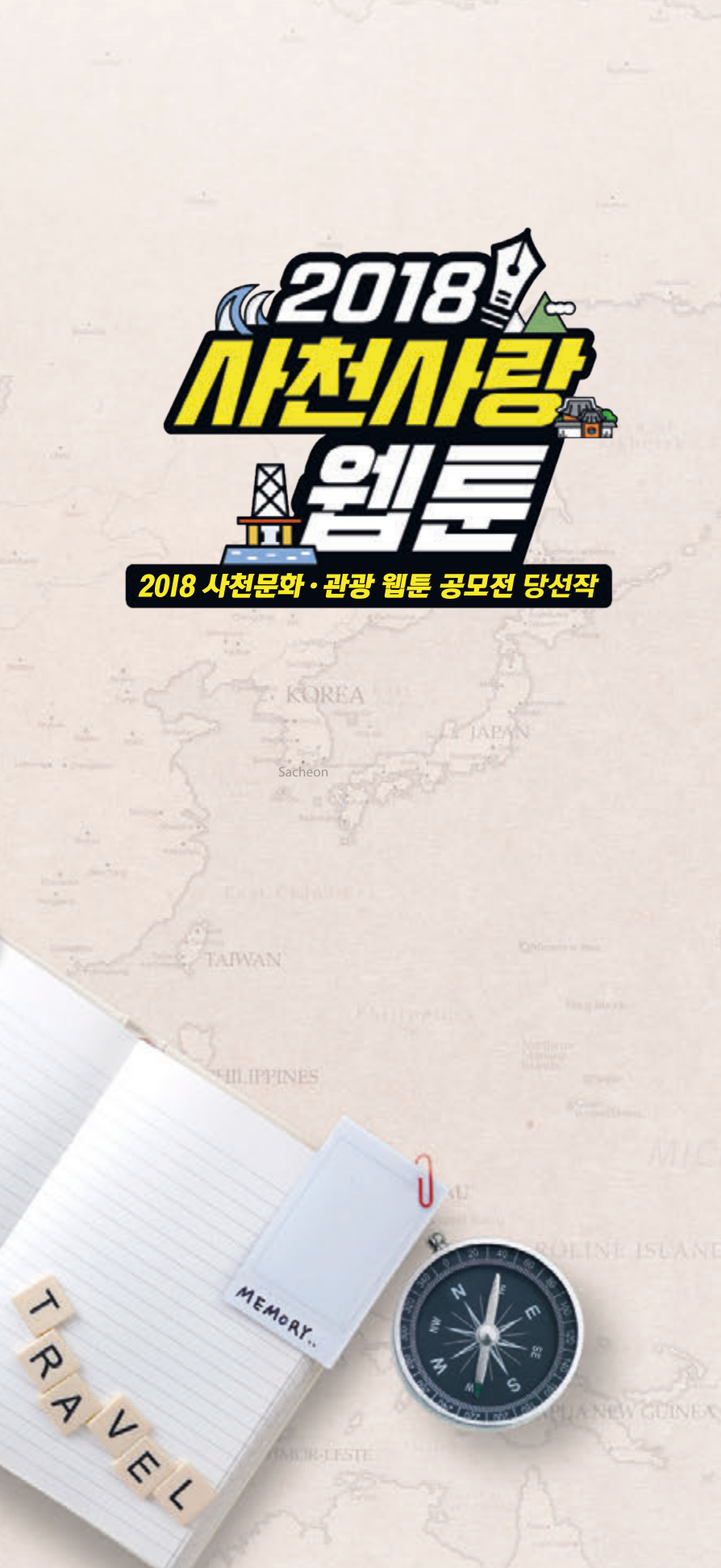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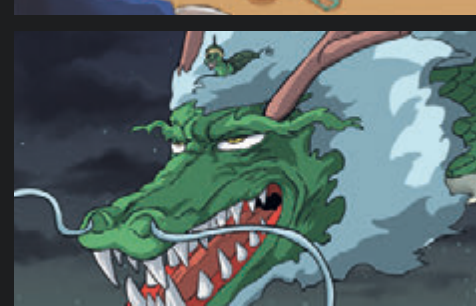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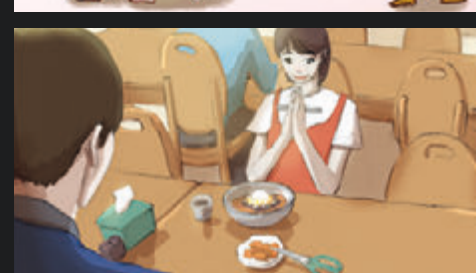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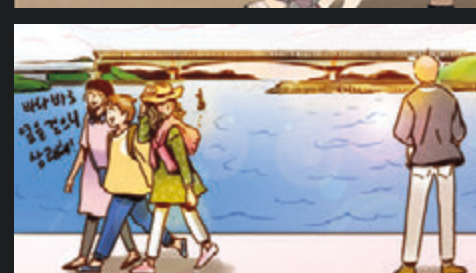


2018 사천사랑 웹툰

2018 사천문화·관광 웹툰 공모전 당선작



대 상	박진주 「비토섬 토끼는 정말 섬이 되었을까」	01
최우수	김호신 「사천愛 빠지다」	11
우 수	김호곤·장은정 「추억은 방울방울」	26
장 려	정재윤 「대나무 숲」	39
	김민관 「별주부전 그 뒷이야기」	47
	강신정·이진영 「코끼리 바위의 전설」	65
	한상아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	75

비토섬 토끼는 정말 섬이 되었을까?

글/그림 박진주





여기까지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비토섬의 전설.

그 전설에....

이런
뽀뽀한 토끼는
절대 없었다!

안녕?

왜 이제 왔어?

뭐래!
너 같은 말하는 토끼
처음 보거든!

어디가? 나도 데려가

어릴 적 할아버지 댁 왔을 때 말고는
사전은 처음이다.

방금 전

아이고~ 알 쫓하는 짐승이라고
할부로 다루면 쓰나~! 뭣!

내?

오랜만에 온 만큼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망한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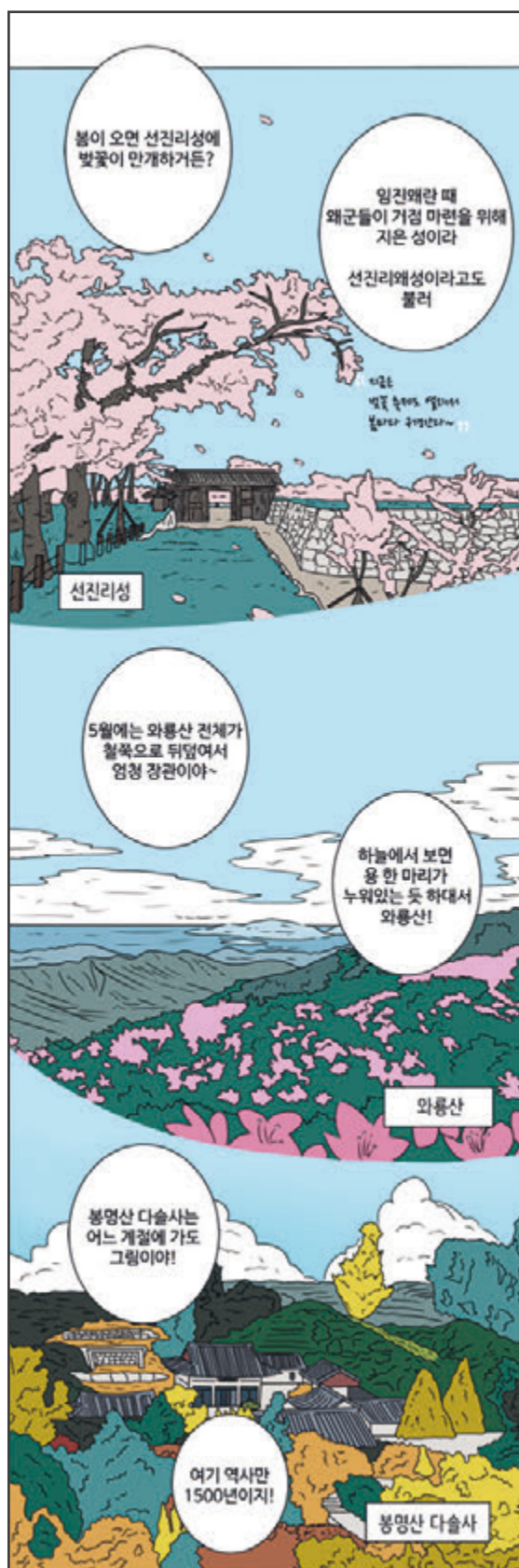
사실 좀 귀찮다.

어디가냐구!!!!!!

비토!

말해주면 토끼가 아냐









내가 더 놀랐거든!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애완동물은
출입 안된다잖아~



시끄러운건 어전하네....



*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최초로 산-바다-섬을 이어주는 케이블카이다.



* 우리나라 섬과 섬을 잇는 최초의 다리.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 선정되었다.









모두 잊을 수 없을 거 같다.



사천愛 빠지다

글 그림 - 호신

이번 정류장은-

사천 시외버스
하이널입니다.

우리 이제
내려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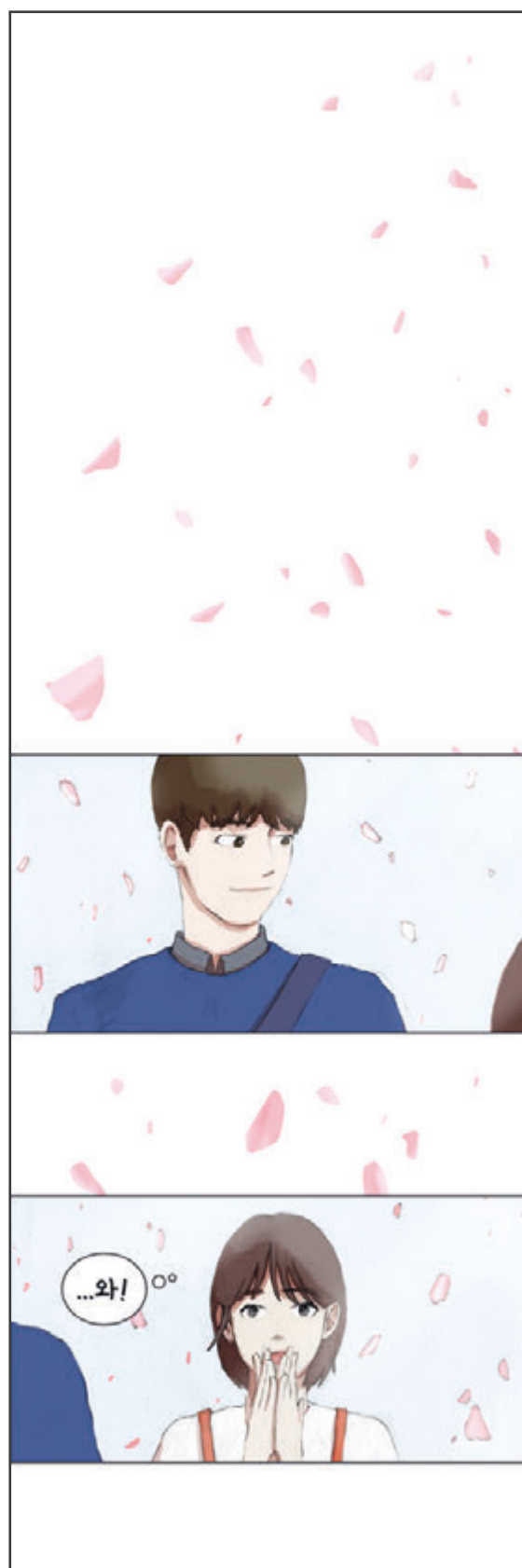
싸우셨나요?

사실 여자친구가
가자고 한 곳은
서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매를 실수해서..

시작부터
삼천포에 빠졌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천요리, 사천요리
하는 건가 봐!



오빠, 그 사천은
중국 사천 아냐..?



그 사천이
이 사천이
아닌가?



뭐야 ㅋㅋㅋ
뭐, 틀린 말은 전혀
아니지만..



그 사천요리를
먹으려면 비행기라고
가야 한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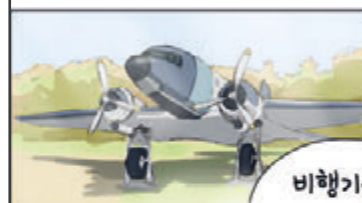




우리 이거 먹고
비행기 보러 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찰칵-

비행기들이
엄청 많네-!

찰칵-



사천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

찰칵-



앞에서 봤던
비행기들과 무언가
다른 거 같아.



부활호라고
사천에서 만든 최초
국산 항공기야.

아- 정말?!



전혀 몰랐어.

사천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진 줄은!



그래서인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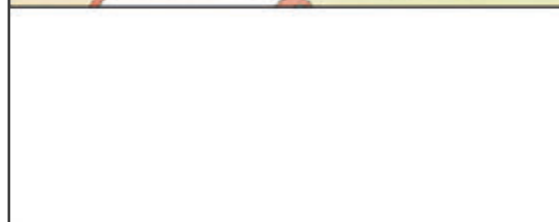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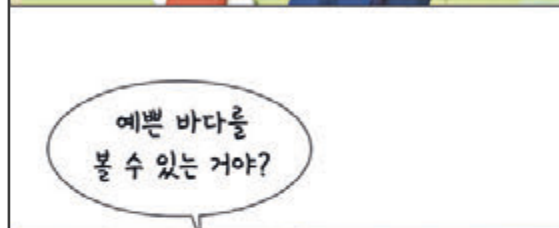


사천항공우주엑스포도
매년 열리고.

대박이다-

난 사천에
그냥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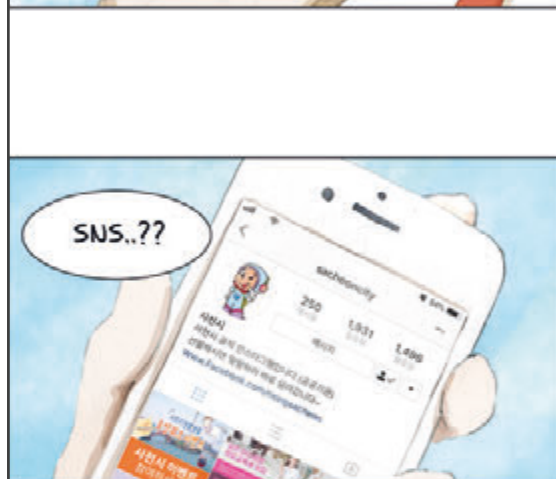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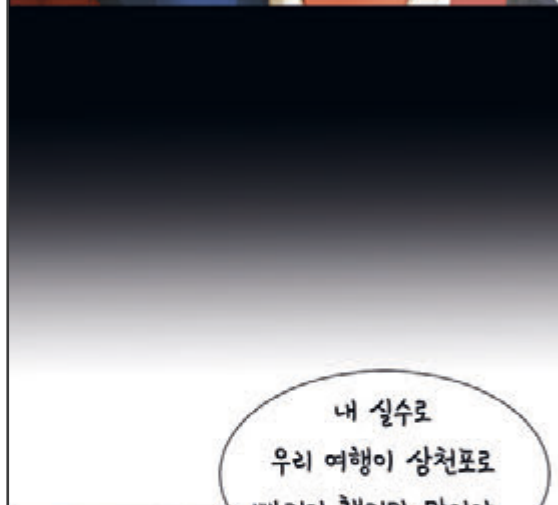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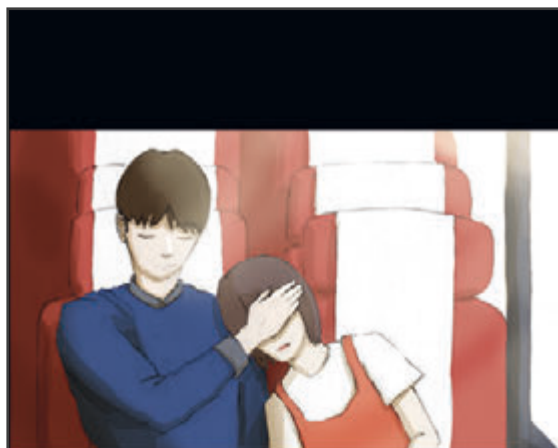
바다 위에 이렇게 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곳은.

진짜 멋져~!











추억은 방울방울

글: 곤, 그림: 장은정





딸아이 학교에서
가족여행 사진으로
수업을 했는데 사진이
없어서 놀림을
받았나 봐.

그런데
여행을 가봤어야
사진이 있지...



그러면 이참에
딸이랑 여행 한번
가보지 그래?

혼자 아이 키우는
내 형편에 여행은
무슨...























당신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찾지 않으려 했는데...

이렇게 오니 좋네...

이제 자주 올게.



어떻게
일기를 써야
또 놀러 가려나~



가을 어느 날. 사천에 사시는 큰고모를 만나러 가던 중
비봉내마을이란 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부모님은 축제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대나무 숲

글/그림 정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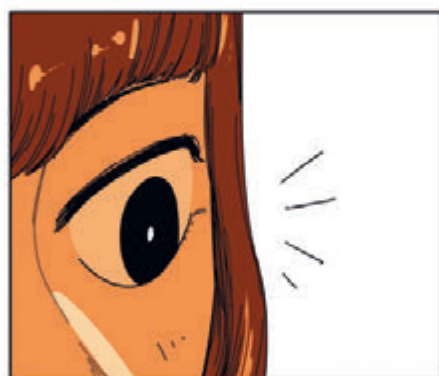
지해야!

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폰만 보니?!
성진이랑 같이 떡도 만들고 놀지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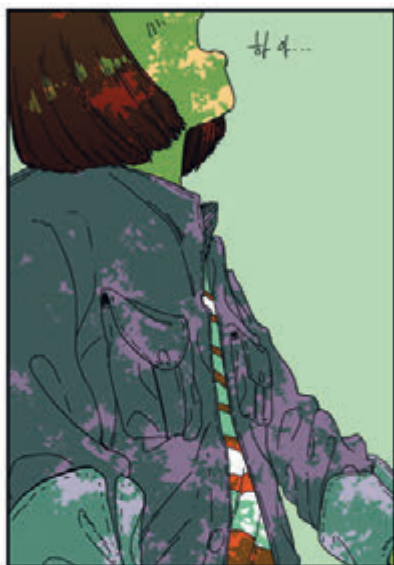


엄마는 나 떡 안 좋아하는걸
알면서 그래? 별로 재밌어
보이지도 않구만.





대나무 숲은 본 적 없는데.
한 번 가볼까?



나무 운치 있네



가끔은 이렇게 오는 것도
좋긴 하겠다.



17:10

술술 시간도 됐고



이제 돌아갈까?





저녁

저녁

저녁



이 팻말 아까전에 본 것 같은데?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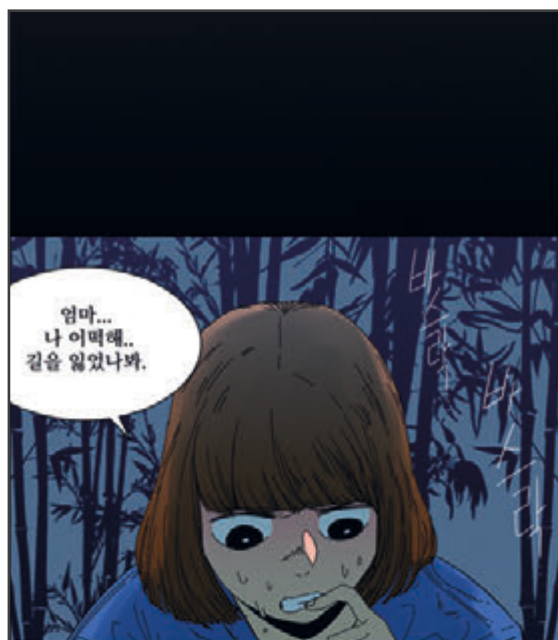
뚜...뚜...뚜...
통화권 이탈,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저녁

지금 몇 시간 쯤 해매고
있는 거야..









별주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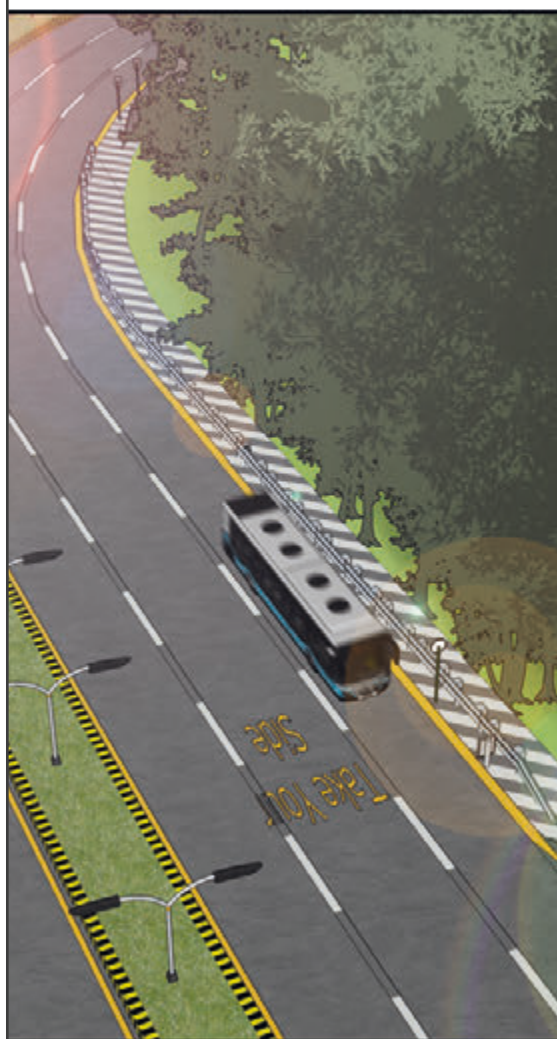
그 뒷이야기

김민관





전생에 별주부전에
등장하는 토끼의 아내였다.



우리는 다른 부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토끼 부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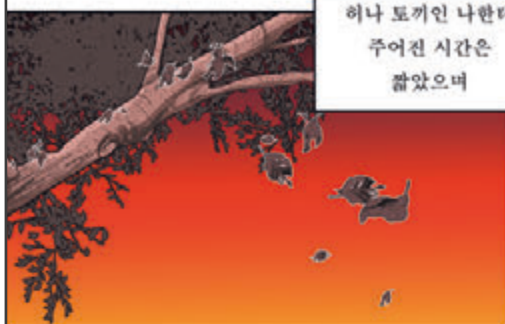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라의 말을 듣고 용궁으로
가버렸다.



난 그렇게 그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다.



히나 토끼인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았으며



결국 다음 돌아오는
가을과 함께
난 사라지고 말았다.



어렸을 때 별주부전을
읽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다.



다만 이제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읽고 싶어져서
책을 꺼내 읽었다.



왜일까...?



왜 이제야 그대가 기억이 났던 걸까?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사천에는 아름다운 8개의
경치를 통틀어서
사천 8경이라고 부르는
장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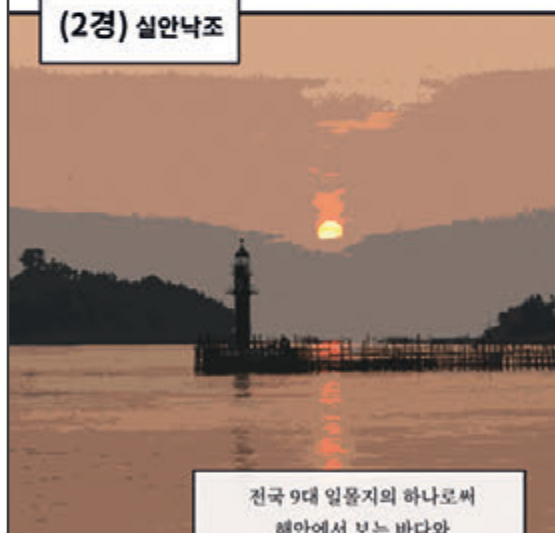


(1경) 창선·삼천포대교

2006년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의 대상을
수상했고, 사천8경 중 제1경으로 정해져 있는
창선·삼천포대교(총연장 3.4km)를 이루는
5개의 연육교(삼천포대교·초암대교·녹도대교·
창선대교·단항교)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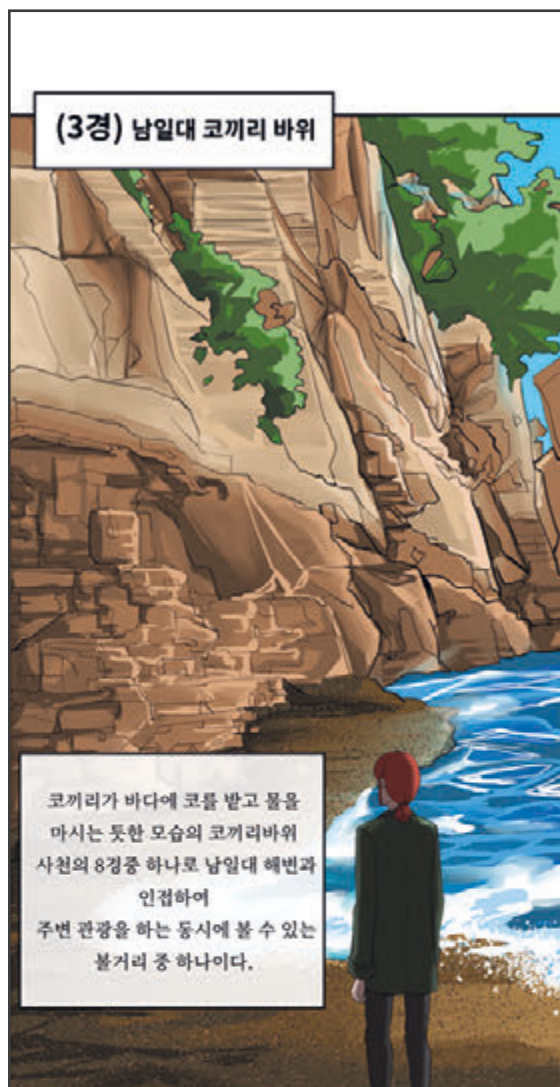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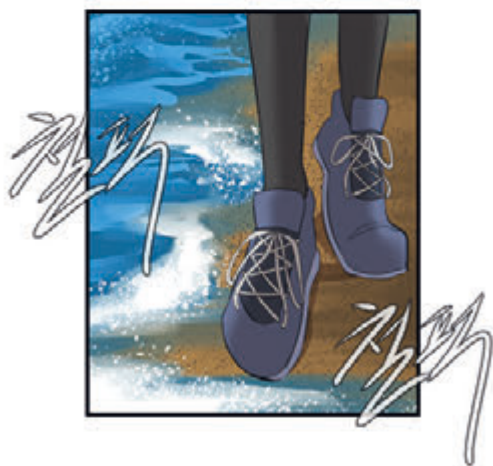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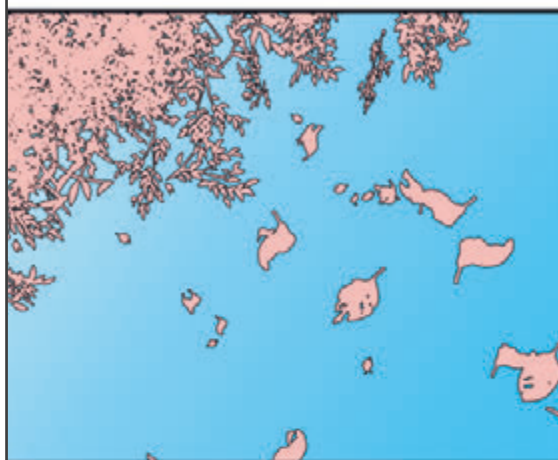
나 때는 다리가 없어서
나무판자에 의존해서 바다를
건너곤 했었는데...



(2경) 실안낙조

전국 9대 일몰지의 하나로써
해안에서 보는 바다와
섬을 건너 남해 서산에 지는
저녁노을이 일품인 사천 실안낙조
부채꼴 모양의 참나무 말뚝으로
만든 죽방렴과 섬, 바다
그리고 일몰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4경) 선진리성 벚꽃



사천의 선진리성은 임진왜란 시기에 쳐들어온 왜군들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쌓은 일본식 성곽이라고 한다.
지금은 야트막한 언덕에 성곽의 흔적만 확인할 수 있으며 봄이 되면 성의 주변에 벚꽃이 만발한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벚꽃으로 감싸려는 듯 한
모습이야



내가 사라지고 여러 일이
있었구나...



(5경) 와룡산 철쭉



3,5월, 온 산이 진홍색으로 물든다.
다양한 기암괴석과 함께 3월에는
진달래가 5월에는 진분홍의 철쭉이
온 산을 뒤덮어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에 온 듯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낸다.

와룡산



와룡산은 높고 낮은 봉우리가
아흔아홉 개로 형성되어
구구연화봉 이라고도 불리며,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누워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하여 와룡산이라고
불린다.



일단 사천8경을 다
돌아보면서 그의 흔적을
되짚어볼 생각입니다

만일 남편을 찾게
된다면 올라가기 전에
꼭 다시 찾아 화주께나

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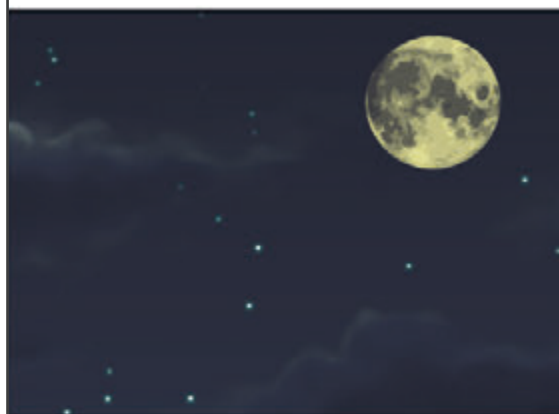
(6경) 봉명산 다솔사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에
위치한 봉명산 자락에 터를
잡고 앉은 1500년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찰이다.
다솔사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는 산과 어울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절로
유명하다.

당신은 여기에도
없네요





(7경) 사천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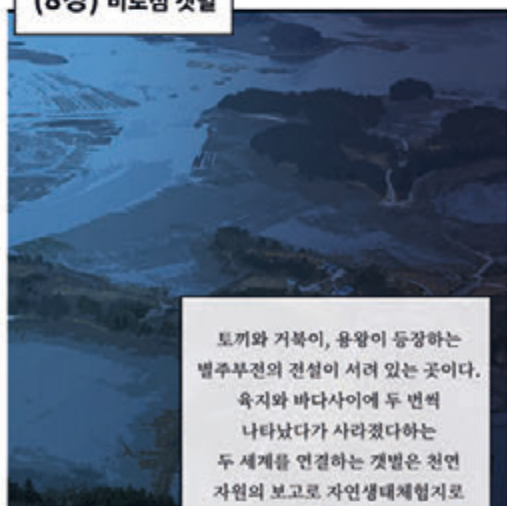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남아있는 사천읍성
황진이의 한시 한 구절인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가 가장 생각나는
곳으로 달이 뜬 밤에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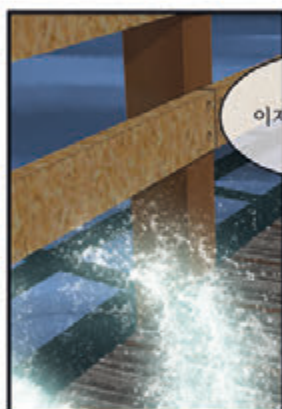


(8경) 비토섬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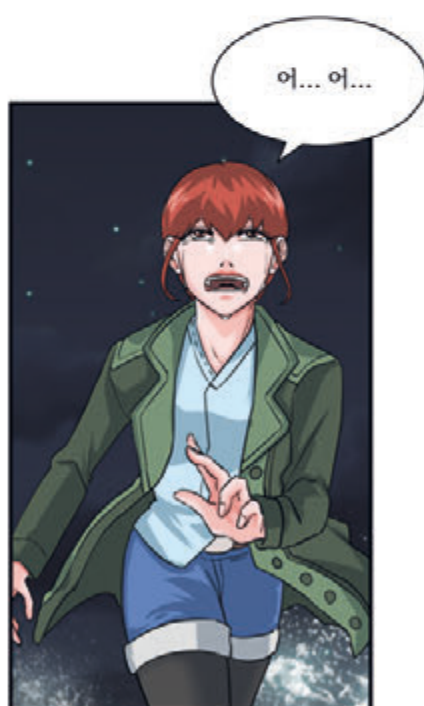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다.
육지와 바다사이에 두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갯벌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자연생태체험지로
최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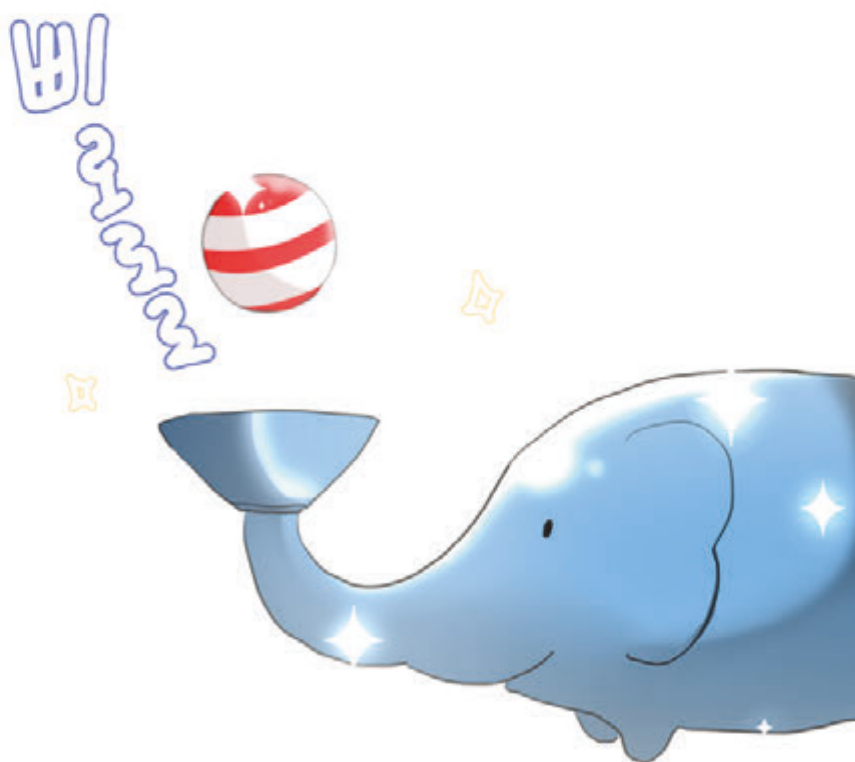






코끼리 바위의 전설

강신정 · 이진영













2경 설악산코

3경 남일대 코끼리 바위

1경
황선, 삼천포 대교

4경 신진리성 옛곳

코끼리 바위는
사천의 8경 중 하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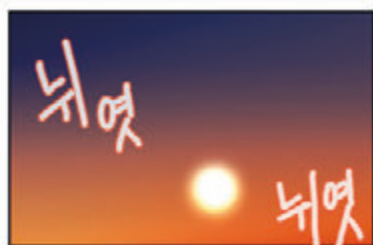
8경 비포성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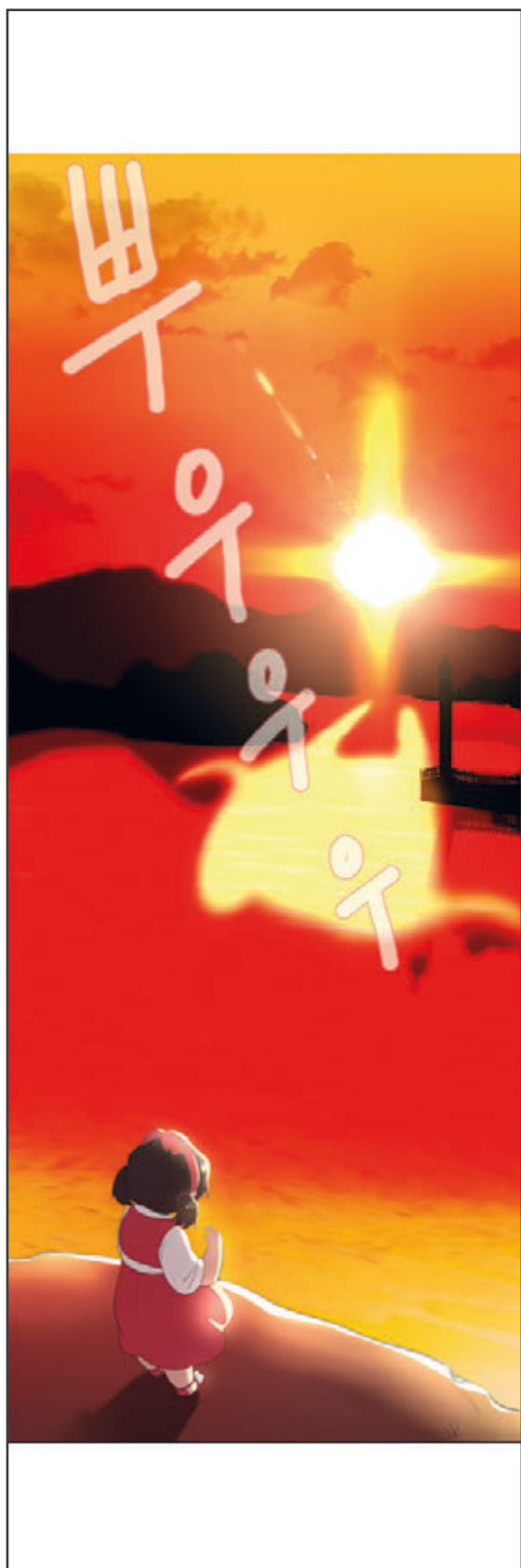
5경 외룡산 일출

7경 사천읍성 명월

6경 봉명산 다솔사







걱정했잖아

와락



엄마 말 안 듣고
뛰어나가고!

저기 할머니가
도와주셨어



응?

휘~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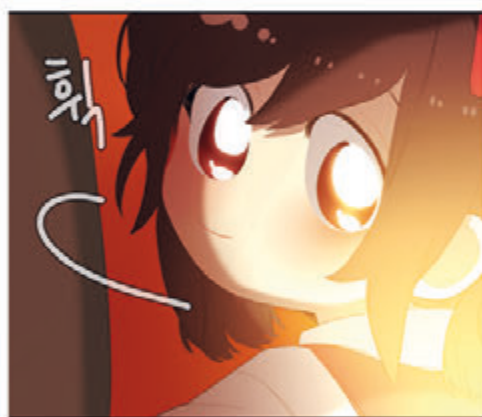


집에 가자!

혼날 줄 알아

어어?







글·그림 한상아



엄마
왜 여기 왔어?
난 워터파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말이야
우리 딸~
여기가 ^{축축}
어떤 곳이나면...



몇 년 전-

야 강바다!
그냥 바다 가겠더니
뭘 사천까지 와?
다 똑같은 바다인데!!



다
똑같은 바다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사천엔
그냥 바다만 있는게
아냐.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자연 유적과

오랜 역사를 담은
사천의 문화 유적



사천 팔경 중 제 4경 '선진리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거점마련을 위해 쌓은 성으로
사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사천 팔경 중 제 6경
'다솔사'



뭐 503년에 창건한
절이라구?
신라시대에
지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뿐만이 아냐.
만해 한용운님이
'독립선언문'의
초고를 쓴 곳이며

김동리 선생의 소설
'등신불'의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하지



그리고
절 뒷편의 1만평
야생 차밭이
또 절경이야.

여기서 나는 차는
'다솔사 차'라고
부른대.



야 너네
내 말 안 듣고 있지!!!



야~ 비리리~
비리리~

여보세~

야! 이하늘!
너 진짜 에어쇼보러
사천까지 간 거야??



에어쇼만이 아니라
'항공우주엑스포'
보러 온 거야

그리고 사천엔

에어쇼만 있는 게
아니란다~

무엇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네~

사천 관광코스
'이순신 바닷길'



까~
고양아~귀여워~!!



생선 얼어 먹으려고
기다리는 건가 봐!





저 사람
자꾸 우리랑 동선이 겹치네..
혼자 왔나?



사천 필수 관광코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바다와 섬, 그리고 산을 잇는
국내 최장의 구간!
산 아니면 바다를 잇는
단조로운 코스가 아니라
섬(초양도)과 바다와
산(각산)을 잇는
다이나믹한 코스가 특징!



와~
발 아래로
바다가 다 보여!



끼아악~

으아 난 무서워서
못 보겠어!!!

후후 아와돌리흥놀이나
짜릿할거야D

에 애들아!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해!



해가 지나까

'바다'랑 '하늘'이



꼭 만나는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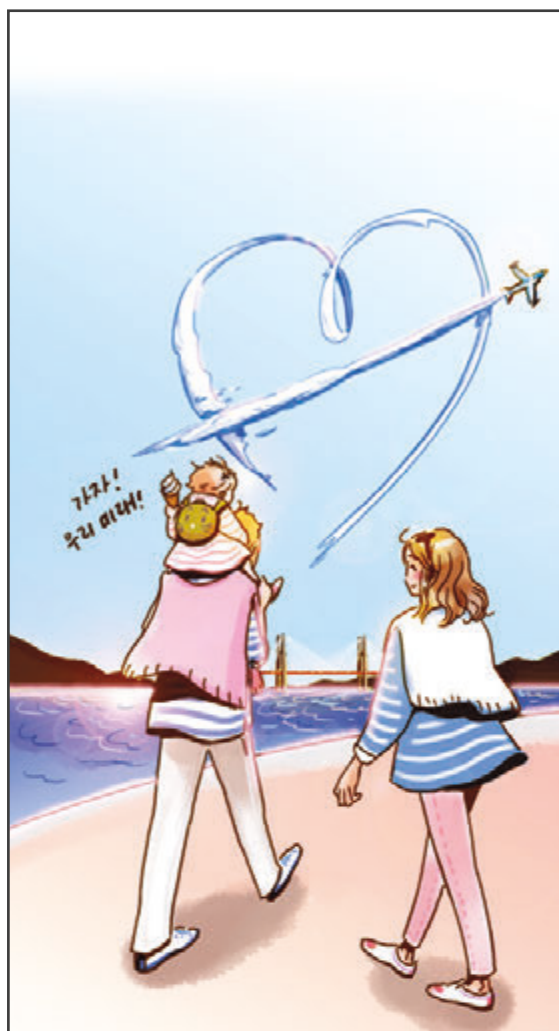




어
아빠왔다!



미안!미안!
우리 미래
아빠가 좀 늦었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

〈사천〉에서
미래를 만나요!



사천시



발행처 사천시 문화관광과

발행일 2018년 8월